중계무역항의 유산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건국 원칙으로서의 자유항

싱가포르의 상업적 정체성은 건국 시점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1819년의 자유항은 무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모든 나라의 상인에게 항구를 개방했습니다. 이 정책은 이 책의 제A편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항구를 중심으로 성장한 중계무역항은 군도의 산물, 중국과 인도의 상품, 유럽의 공산품을 모아 분류하고 등급을 매긴 뒤 먼 시장으로 재분배했습니다. 제A편 제IV장에서는 항구를 드나들던 정크선, 프라후선, 컨트리 선박(country ships), 그리고 강변의 에이전시 하우스(agency house)와 역내 상인들을 잇던 신용 사슬을 설명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싱가포르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은 물품에 수반되는 서비스에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좀처럼 확인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을 평가하고, 먼 거리에 걸쳐 신용을 제공하며, 변동성이 큰 가격의 위험을 떠안았습니다. 이들은 개인적 신뢰, 공동체 제도, 영국 상법을 결합하여 이에 대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트레이딩 하우스가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싱가포르는 형태를 바꾸어 가며 두 세기 동안 이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독립 공화국의 정부는 이 역사를 명시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Enterprise Singapore)의 한 고위 관계자가 2023년에 쓴 기고문은 싱가포르가 이미 19세기에 향신료 같은 원자재의 핵심 중계무역항이었으며, 1819년 자유항이 되면서 트레이더들이 더욱 몰려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1]

중계무역항에서 산업 경제로

중계무역 모델은 독립 전후 10년 사이에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인구는 무역만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규모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1965년 이후 실업률은 10~12%에 달했고, 이는 사회 불안을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2] 1963년 이후 인도네시아와의 대결정책과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의 분리는 싱가포르를 전통적 배후지의 일부와 단절시켰으며, 이는 제C편 제II장에서 살펴봅니다. 정부는 도시가 더 이상 무역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해답은 산업화였습니다. 정부는 이미 1961년에 투자 유치를 주도할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을 설립했습니다.[3] 주롱의 매립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장관들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해외를 다녔습니다. 제C편 제III장에서 설명하는 이 전략은 20년 만에 싱가포르를 중계무역항에서 제조업 경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중계무역은 이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2000년에도 재수출은 싱가포르 상품 수출의 43%를 차지했습니다.[4] 옛 기능은 새 기능과 나란히 존속했고, 이후 이 장에서 다루는 역외 트레이딩이라는 다른 형태로 되돌아왔습니다.

정유와 최초의 트레이더들

옛 중계무역항과 현대 트레이딩 허브를 잇는 다리는 석유였습니다. 셸은 오래전부터 본섬 남쪽의 섬인 풀라우 부콤(Pulau Bukom)을 저장·유통 기지로 사용해 왔습니다. 1960년대에 싱가포르는 에쏘, 모빌, 싱가포르 정유회사(Singapore Refining Company) 등 석유 메이저들이 연안 섬들에 정유 공장을 짓도록 유치했습니다.[5] 1970년대 중반 싱가포르는 세계 3위의 정유 중심지가 되었습니다.[6] 이후 남쪽의 작은 섬 7개를 합쳐 주롱섬을 만들었습니다. 1995년에 매립이 시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작되어 2000년 10월 14일 공식 개장한 주롱섬은 정유·석유화학 클러스터를 통합했습니다.[7] 이 편 제II장에서는 정유 공장과 저장 터미널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정유 공장에는 원유가 필요하고, 정유 공장이 생산한 제품은 판매되어야 합니다. 그 주변에서 석유회사의 마케팅·공급 부서, 매수인과 매도인을 연결하는 브로커, 자기 계산으로 화물을 사고파는 독립 트레이더들이 성장했습니다. 1966년 로테르담에서 설립된 비톨(Vitol)은 1979년 싱가포르 사무소를 열었습니다.[8] 사업가 피터 푸(Peter Fu)와 옹벵셍(Ong Beng Seng)이 설립한 싱가포르 회사 쿠오 오일(Kuo Oil)이 1988년에 그 뒤를 이었습니다.[9]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정부는 실물 석유 산업이 트레이딩 공동체를 만들어 냈으며, 그 활동을 독자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중계무역항이 물려준 것

중계무역항의 세 가지 요소가 트레이딩 허브로 이어졌습니다. 첫째는 개방성입니다. 싱가포르는 모든 국적의 선박과 사람이 사업할 수 있는 항구이자 시장으로 남아 있으며, 오늘날 이는 미국, 유럽, 중국, 인도, 일본, 걸프 지역의 트레이더들이 나란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무역과 금융의 결합입니다. 제B편 제II장에서 살펴보는 19세기의 환은행(exchange banks)이 중계무역항에 금융을 제공했듯이, 21세기의 국제 은행들은 제H편 제I장에서 설명하는 수단을 통해 트레이딩 허브에 금융을 제공합니다. 셋째는 예측 가능한 법질서에 대한 의존입니다. 식민지 법원의 영국 상사법에서부터 제F편에서 살펴보는 계약, 법원, 중재기관에 이르기까지가 그것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덜 주목받습니다. 19세기의 중계무역항은 세입이 무역에 달려 있다고 이해하고 그래서 무역에 세금을 매기지 않은 국가가 운영했습니다. 21세기의 트레이딩 허브는 번영이 트레이딩 회사에 달려 있다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들의 적격 소득에 감면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운영합니다. 수단은 다릅니다. 자유항은 관세를 폐지했고, 글로벌 트레이더 프로그램(Global Trader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Programme)은 소득세를 줄여 줍니다. 그러나 상업이 가능한 한 적은 조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기본 정책은 같으며, 제B편 제I장에서는 이를 영국 직할 식민지의 재정 체제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했습니다.

주

1. Lee Pak Sing(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무역·연결성 담당 부최고경영자), "Singapore – a vital link in the global energy supply chain", *The Business Times*, 2023년 9월 4일, JTC Corporation이 2023년 11월 10일 재게재(jtc.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In the 1800s, Singapore was already a key entrepot for commodities such as spices"; "Traders were further attracted to Singapore when it became a free port in 1819." ↩

2. Wikipedia, "History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중계무역은 "was no longer sufficient to support the large population"; "The unemployment rate ranged between 10 and 12%", 이는 "threatened to create civil unrest". ↩

3. Wikipedia, "Economy of Singapore"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61년 "the Singapore Government established the Economic Development Board to spearhead an investment drive". ↩

4. Wikipedia, "Economy of Singapore"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Re-exports accounted for 43% of Singapore's total sales to other countries in 2000." ↩

5. Lee Pak Sing, "Singapore – a vital link in the global energy supply chain", *The Business Times*, 2023년 9월 4일, JTC 재게재(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Singapore started off by courting oil majors such as Esso, Mobil Oil and Singapore Refining Company … to operate oil refinery facilities here in the 1960s." ↩

6. Wikipedia, "History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싱가포르는 "attracted big oil companies like Shell and Esso"했으며 "the third largest oil-refining centre in the world by the mid-1970s"가 되었음.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7. Wikipedia, “Jurong Island”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약 991헥타르의 작은 섬 7개로 형성되어 약 3,500헥타르로 확장됨; “Physical land reclamation began in 1995, and Jurong Island was officially opened on 14 October 2000”; 정유 공장의 원유 처리 능력은 하루 150만 배럴. ↩

8. Vitol, “About” (vitol.com,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Founded in Rotterdam in 1966 by Henk Viëtor and Jacques Detiger”; 1969년 런던 사무소; 1979년 싱가포르 사무소; 전 세계 40개 이상의 사무소. ↩

9. Lim Hng Kiang(통상산업부 장관), Global Trader Networking Dinner 2009 연설, Raffles City Convention Centre, 2009년 5월 26일(mti.gov.sg, 현 meti.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Singapore-headquartered Kuo Oil, set up by businessmen Peter Fu and Ong Beng Seng in 1988”.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